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7(1): 127~147, 2026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37(1): 127~147, 2026
<http://doi.org/10.7856/kjcls.2026.37.1.127>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 본 청년 창업을 위한 콘텐츠 개선 요인 도출 - 심층 인터뷰와 가중치 분석을 중심으로 -

안 필균·권봉관·도지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Factors to Improve Youth Entrepreneurship Content: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s -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Weighted Evaluation -

Phil-Gyun An · Bong-Kwan Kwon · Jee-Yoon Do[†]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Wan-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key factors for improv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settlement support content in rural areas, drawing on both demand-side (youth participants) and supply-side (program providers and policymakers) perspectives. The study identified the essential components that influence youth engagement and long-term settlement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young entrepreneurs and community organizer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study prioritized core content elements—financial support, physical space, community engagement, and educational programs—based on their perceived importance. Results indicated a notable divergence between stakeholders: youth participants prioritized financial and spatial support, while providers emphasized educational and community-based initiativ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integrated, user-centered content strategies that reflect real-world experiences and local contexts.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nsights for developing sustainable, demand-driven systems that support youth entrepreneurship and promote lasting settlement in rural communities.

Key words: youth entrepreneurship, local settlement, content improvement,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Project No. RS-2022-RD010246)",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Received: 19 January, 2026 Revised: 5 February, 2026 Accepted: 23 February, 2026

[†]**Corresponding Author:** Jee-Yoon Do Tel: +82-63-238-2337 E-mail: djy1228@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정부는 청년층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산하기관들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화 자금, 전문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23). 예컨대 '포텐셜 씨드(Potential Seed)'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투자 연계형으로 육성하며, 'K.Startup 사전인큐베이팅'은 예비 창업자의 발표 역량 및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간 중복성과 콘텐츠 구성의 획일화, 수요 반영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유사한 교육과 멘토링 위주의 프로그램이 동일 시기에 운영되면서 청년 등 수요자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선택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멘토링 등 일부 항목이 수요에 비해 과잉 제공되고 있으며, 정책자금과 판로지원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Noh and Kang 2012). 정부 지원이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매출 증가나 고용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Byun and Sung 2013). 지역창업 정책은 중앙정부와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며, 지역 특성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방 소멸과 인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Lee and Kim 2023).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론 중심 교육과 문서

작성 식 멘토링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장과 고객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실전형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창업자와 청년공동체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지속 가능한 창업 활동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및 정책 요소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 및 정착과 관련된 교육, 자금, 공간, 네트워크 등 핵심 지원 요소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관점의 우선순위를 가중치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콘텐츠와 관련 사업 및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무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앙정부 추진 창업 지원정책 선행연구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환경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들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Yang et al.(2013)은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9개 정부 부처의 총 44개 창업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창업지원 효과의 분산과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분석되었으며, 공급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생태계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학 이전 단계의 창업교육과 벤처투자 자금의 확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Lee et al.(2018)은 창업경진대회 운영자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진대회의 형식화 및 평가 체계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들은 산업별 특성화 대회 운영, 멘토풀의 전문성 강화, 심사위원 사후평가제 도입 등을 운영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창업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학 및 정부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이 양적 확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질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 불명확성, 유사·중복 사업 문제, 실무자 전문성 미흡 등이 핵심적인 개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2. 창업지원 정책성과 분석 선행연구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ee et al.(2018)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지원, 자금지원, 교육·멘토링, 홍보·마케팅 지원 등 네 가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지원 요소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멘토링과 자금지원의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청년 창업의 성과 제고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Park et al.(2013)은 정부의 3대 창업지원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맞춤형사업화, 창업아이템사업화)을 대상으로 7년간의 생존율과 경제성과를 분석하였다. 생존분석 결과,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일반 기업보다 높았으나, 매출 성장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창업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An & Park(2021)은 청년활동 정책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분석을 통해 수요자의 인식과 정책 개선 방향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청년정책 구성요소별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Lee & Lee(2022)는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가 14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창업 실패요인을 ERIS 모형과 조직군 생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 실패 요인은 창업 아이템 검증 부족, 창업자의 경험 및 지식 부족, 수익모델 부재, 제품개발 지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재도전 기반을 뒷받침할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의 미비가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청년창업 콘텐츠의 개선과 관련하여, Jeon(2013)은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1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청년창업 지원이 획일적 플러그그램에서 벗어나 실질적 콘텐츠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였으며, Jo & Kim(2019)는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정책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네트워크, 재무, 회계 등의 간접 지원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창업 콘텐츠가 수요자가 필요하고 체감하는 실무 운영 중심 콘텐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 지원정책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창업정책의 성과평가가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질적 성과 및 창업자의 학습·재도전 역량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창업 실패를 포용하고 재도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재도전형 정책 및 지원사업'의 설계와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향후 개선 방향으로 제시된다.

3. 로컬기반 창업지원 선행연구

최근에는 청년, 여성, 지역, 농업 등 특수한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한 세분화된 창업지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ae et al.(2021)은 청년 여성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농촌 정착 및 취·창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여성은 농지확보, 자금조달, 주거불안,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 등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기존 정책지원이 농업기술 중심에 머물러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보육, 안전, 주거 등)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의 농촌 창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Kim 2016). Kang & Kwon(2022)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며, 이들의 산업별 분포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로컬크리에이터가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지역문화 기반의 가치 창출형 창업가임을 강조하며, 성장단계별 지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Jun(2024)은 청년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이 영농 지속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유대감과 같은 요소는 정착의 심리적 안정성과 밀접히 연결되며 이는 창업 이후 지역 내 지속적 활동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 하였다.

로컬기반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년, 여성, 로컬 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된 일팔지원 방식보다는 대상 맞춤형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농업과 같이 다양한 커뮤니티와 인프라가 요구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더욱 필요하다(Tae et al. 2021). 특히 기술 중심의 단편적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정착, 생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합한 다차원적 창업지원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적 지원 확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 또는 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자의 '정착'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둘째, 정량적 성과(생존율, 매출 등) 중심의 평가지표가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속동기나 지역사회 내 정체성 형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년 창업 및 정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다뤄지지 않았다. 청년의 수요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방식의 개선 기반의 지원, 예컨대 창업자 맞춤형 콘텐츠, 지역 기반 미디어, 창업체험형 교육 등 콘텐츠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4. 해외사례 분석

해외에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EU와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YEPA(Youth Entrepreneurship Policy Academy 2023) 이니셔티브는 정책 담당자 간의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며, 각국의 우수 사례를 상호 학습하는 체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유도하고 있으며(OECD-EU commission 2023).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 정책이 일회성 과제가 아닌 국가 전략의 일부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평가 체계 및 교육 도구의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IFC는 청년고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단편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교육, 금융 접근성, 시장 연계, 멘토링이 통합된 방식이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World

Bank & IFC 2013). 이들은 특히 지역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맞춤형 훈련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지원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Ashurbaev(2024)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청년 창업 정책 분석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험 부족, 정보 단절, 제도 이해 부족 등 비경제적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단계별 창업교육, 멘토 기반 학습, 디지털 정보 플랫폼 확대가 창업 실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또한, ASEAN 지역에서는 미래형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으며, 청년이 기술기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고용 간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ASEAN Secretariat 2024). 이와 함께 실천 가이드로 제시된 CAD Toolkit은 청년 친화적 정책 설계와 커뮤니티 중심 실행을 위한 모듈형 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Decent Jobs for Youth & ILO 2022). EU는 청년 창업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기 전 단계부터 실행 이후 단계까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각 단계별로 실증 기반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EU 2020).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창업 생태계 내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정책이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지역 밀착적인 실행 전략, 정책 간 연계성 확보, 창업자의 실제 경험과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적 지원 확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시사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 또는 제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 창업 이후의 정착과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는 청년의 장기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설계에 한계를 드러낸다. 둘째, 창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생존율, 매출 증가 등 정량적 지표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자의 지속 동기나 지역사회 내 정체성 형성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년 창업 및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창업자 맞춤형 콘텐츠, 지역기반 미디어, 창업 체험형 교육 등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콘텐츠 개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청년창업 및 정착 콘텐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콘텐츠의 정의를 설정하고 정의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청년 공동체의 운영 콘텐츠를 분석하여 유형과 효과를 분석하고 제공자(운영자) 대상 심층 인터뷰와 수요자(창업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 공동체는 행안부 청년지원사업 만들기로 조성된 청년마을 39개와 지자체별 지역형 청년마을 및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 공동체 79개를 분석 하였으며, 제공자 대상 심층 인터뷰는 행안부 청년마을, 지역형 청년마을, 청년 공동체, 청년센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문항을 검증하기 위해 공공 주도형 청년 공동체(행안부 청년마을) 운영자 대상으로 인터뷰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수요자 대상 설문은 위해 제공사 심층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설문 항목을 구성 하였다. 설문 항목은 총 19개로 창업경험, 청년 역량강화,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 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범위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콘텐츠’라는 용어는 범위가 넓어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연구에서 사용하는 ‘콘텐츠’의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자 한다.

‘콘텐츠’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목적을 담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나 감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을 뜻함. 형태에는 글, 이미지, 영상 공연, 게임, 전시 등이 있으나 이 외에 관심 분야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콘텐츠에 포함된다. Table 1과 같이 ‘콘텐츠’는 형식, 내용, 목적, 수용자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창작자가 메시지를 담아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 대상이 콘텐츠를 경험 및 해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며, 취득한 정보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작동된다.

‘콘텐츠’의 정의 및 구성요소, 작동 과정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범위를 ‘청년 창업가 및 이주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청년마을, 청년 공동체에서 단체의 영위를 위해 운영 중인 콘텐츠로 한정하고자 한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업 및 정착 지원 콘텐츠는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금, 교육 등 핵심 정보를 전달하고(정보제공), 실제 청년 창업가 및 지원 공동체의 운영 스토리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며(모델제시), 법률, 세무, 마케팅 등 창업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문제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의 작동 분야는 창업과 정착 분야이며 아이템 개발, 마케팅, 점포운영, 자금조달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티 활동, 지역 융화 등이 해당되며 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Components of ‘Content’

Category	Description
Format	Text, image, audio, video, etc., suitable for the purpose and field of use
Content	Information and data, narrative and storytelling, insights and emotions
Purpose	Inducing consumer behavior, providing education/information, branding, building relationships
Audience	Not passive consumers, but participants who interpret, react, and co-develop content

Table 2. Scope of content for activating youth communities

Category	Description
Purpose	Support stable local settlement of young entrepreneurs/migrants and community activation
Format	Programs within national/local government support projects; operated by youth villages/communities
Provided information	Key information related to startup/settlement (programs, funding, education, etc.)
Operational field	Startup (idea development, marketing, shop operation), Settlement (networking, community activities)

Table 3. Expert opinions and interview question development mapping

2024 Expert opinion		Linked interview question	
Category	Opinion	Category	Survey content
Policy improvements	Need to prioritize financial support, space, etc.	Policy improvements	Priority support items + descriptive reasons
Village operation experience	Operation purpose, staff composition, network building	Village operation experience	Operation period, number of youth, staff, program effectiveness
Space preparation	Need for legal/educational pre-checks	Space preparation	Mandatory education before space contracts
Open feedback	Need for new content development	Open feedback	Media usage, content impact, new ideas

2) 설문문항 개발

정부 주도 청년마을 및 지역형 청년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대상 심층 인터뷰 문항은 2024년 청년마을 운영자 대상 자문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발전시켰다. 2024년에 정부 주도 청년마을 4곳(공주, 세종, 신안, 괴산)을 대상으로 청년마을 운영, 청년창업공간 조성, 지역사회 반응 및 효과, 제도적 지원 필요사항, 자유의견 등에 대한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으며, 단순 진술형 문항으로 설계하여 회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의견은 통합하고 지역간 특수 사례는 보완 항목으로 정리하여 Table 3과 같이 청년 창업 및 정착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보안을 위한 우선지원 항목, 추진 사례의 효과성 평가, 활용 콘텐츠의 매체 조사 등의 항목으로 구체화 하였다.

정책적 개선사항 분야의 경우, 다수 전문가가 ‘자금’, ‘공간’, ‘교육’, ‘커뮤니티’ 등의 요소 중 어떤 항목이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선택형 문항과 그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항이 병행 구성되었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조사에서는 청년마을 운영 연도, 청년 수, 지원 여부, 외부 네트워크 활용 등 세부항목이 포함되었다. 공간 조성 시 유의사항의 경우 공간 계약에 필요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창업 초기 실수 예방

과 지속 가능한 정착 지원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 반영되었다. 그 외, 자유 의견에서 청년의 활동성과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창업 및 정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방향, 효과성, 활용 매체 조사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된 심층 인터뷰 문항은 Table 4와 같다.

운영자 심층인터뷰 결과 공통적으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자 경험 기반 심층인터뷰 결과를 재구성하여 수요자(청년)들 시선에서 느끼는 청년 창업 및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창업 경험, 청년 역량강화 콘텐츠,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청년 창업 및 정착 활성화 지원 방향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문항 수 및 특성은 Table 5와 같다.

3) 심층인터뷰 예비조사 및 문항 검증

심층 인터뷰 문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청년마을 운영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창업 및 정착 지원과 관련한 정책, 제도, 콘텐츠의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는 목적을 고려하여 운영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평

Table 4. In-depth interview questions for providers (Operators)

Field	Item	Content	Num
Operation of youth village	Youth village	Operation period, main objectives and activities, and outcomes	10
	Network	Associated youth and the size of the network	
	Related projects	Types of support programs and their usage	
Promotion of youth entrepreneurship and settlement	Support item	Priority support items and their rationale, and content being promoted	8
	Information search	Methods of searching for content-related information	
	Enhancement plans	Areas for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content	
Revitalization of youth community	Community operation	Existence of local and migrant youth communities	7
	Network	Whether it is a network-type youth village community	
	Enhancement plans	Content related to community operation and content that needs to be developed	
Other opinions	Open opinions	Appropriateness of the question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the definition of 'rurality'	3

Table 5. Survey items for youth respondents

Category	Questions	Content	Notes
Startup experience	8	Education satisfaction, success factors, etc.	5-point Likert scale
Capacity building content	5	Priority elements (space, funding, etc.)	Bipolar interval Scale
Startup support infrastructure	5	Housing, transportation, service delivery	Bipolar interval Scale
Activation of youth startup/community	1	open-ended question	Descriptive

가 기준이 정량적 성과 지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성에서는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정착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청년 지원사업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 창업 및 정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 요인으로는 자금, 공간, 커뮤니티가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자금 지원은 창업 실험의 기반, 공간은 거주와 작업의 물리적 조건,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안정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 하였다. 청년 창업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로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전형, 맞춤형, 실험 중심 교육 콘텐

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마케팅, 제품개발, 브랜딩 등의 역량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므로 이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 되었다.

심층 인터뷰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문항은 현장의 의견 수렴에 유의미한 틀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 지역 주민과의 갈등 조정, 정착 이후 자립 방안 등의 현실적 문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부 문항(예: '농촌다움')은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의 해석에 따라 편차가 크며, 이에 대한 정의의 명료화가 요구되어 문항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Pre-test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questions

Category	Asan	Ye-san	Cheong-yang	Hong-seong
Policy and program	Short-term outcome focus	Lack of sustainability	Over-involvement of local gov.	Support for youth autonomy
Priority support area	Space	Community	Funding	Funding
Content improvements	Experimental entrepreneurship training	Practical startup education	Local resource-based education	Integrated startup-settlement content
Question feedback	Add negative sentiment recognition 'rurality'	recognition → Remove abstract questions	(Removal of the definition of	

4) 자료 수집

청년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공자(운영자) 및 수요자(창업 경험자) 대상 자료수집은 모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공자 심층 인터뷰는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사전 연락 후, 대면 인터뷰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방문 하였다. 청년마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문항에 대한 답변을 회신받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는 2025년 9월과 2025년 10월 총 2회로 실시하였다. 제공자 의견에 기반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1차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설문지에 반영하였다. 수정 및 보완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청년 센터 및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 청년정착 지원 관련 콘텐츠의 구성과 만족도, 중요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 결과에 대한 AHP 분석을 실시하고 서술형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공급자 및 수요자의 의견을 도출 하였다. AHP 분석은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에 효과적이며

(L.Saaty 1980), AHP 분석에서 쌍대비교를 통한 중요도, 가중치 분석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되는 대표적 기법이다(Satty, Thomas. L & Vargas, Luis, g. 2012). 정량화가 어려운 요소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회과학, 정책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R.W.Saaty 1987). AHP 분석에서 쌍대비교 행렬의 판단 일관성(consistency)을 검토하기 위해 Saaty(1980)가 제안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CR 값이 0.10 이하일 경우 판단의 일관성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Kwon & Kim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CR 허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쌍대비교 행렬은 5×5 구조가 대다수로, 기준 항목의 수가 많을수록 응답자의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CR 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설문 응답자는 전문가나 학계 인사와 달리 실제 청년 창업자, 공동체 운영자 등 실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일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AHP 분석의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Huh & Lee(2021)는 평가 대상에 따라 적합한 평가 척도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비일관적인 판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분석에

반영하였다. 셋째, 설문은 모든 응답자에게 개별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문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 시간을 제공하였으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차이에 따라 CR값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인 $CR \leq 0.10$ 을 원칙으로 삼되, 실무자 응답자 특성과 매트릭스 구조, 조사 방식 등을 감안하여 $CR \leq 0.20$ 까지 허용 가능한 판단 일관성의 범위로 간주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도 실무자 대상 AHP 연구에서는 $CR \leq 0.20$ 까지를 허용 가능한 범위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다(Baek and Choi 2021; Lee 2021; Park, Lee and Moon 2024). 최종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다수의 응답이 해당 허용 기준 내에 포함되었으며, CR이 0.20보다 높은 경우 극단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중앙(행정안전부) 및 지역(지자체, 청년공동체) 청년마을 콘텐츠 운영 분석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센터’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자체 별로 243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https://nysc.or.kr>),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25년 기준 전국 51개 마을을 지정,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외부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육성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청년마을을 지정 및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도 지역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청년 정착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에서 지정한 청년마을과 청년 공동체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의 주제 및 유형을 정리하여 청년 정착을 위한 콘텐츠의 방향성과 경향을 도출하였다. ‘청년센터’는 청년 맞춤형 사업 기획 및 운영에 특화되어 있어 역량강화 콘텐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3년까지 행안부에서 지정한 39개 청년마을, 지역에서 지정 및 운영 중인 청년마을(전남 19, 전북 25, 경남 7, 경북 12) 63개, 경기 지역 청년공동체 16개이며, 운영 콘텐츠 분석을 통해 핵심 목적 또는 활동 분야, 콘텐츠 전달 및 체험 방식을 분류하였다.

1) 행안부 지정 청년마을의 콘텐츠 유형 분석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39개 청년마을(2023년 기준)은 지역별 자원, 인구구조, 지리적 특징 등이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지역별 대표 마을과 주요특징은 Table 7과 같다.

행안부 지정 청년 마을의 콘텐츠 주제 및 내용은 지역 특성과 청년 유입 목적에 맞추어 Table 8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콘텐츠 분석 결과 관계 형성 및 지역창업 콘텐츠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었고, 청년의 지역 활동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는 운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 되었다. 특히, 정주체험 및 지역탐방과 같은 단순히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 비율이 1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마을이 일회성 지역 방문형이 아닌 정착 유도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체험형, 커뮤니티형, 정착형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9와 같다.

Table 7. Operational areas and features of youth villag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gion	Count	Main Characteristics
Gangwon	9	Focused on declining mining/tourist towns (e.g., Taebaek, Sokcho)
Chungnam	7	Combining hot springs, mudflats, and historical resources (e.g., DOGO in Asan)
Chungbuk	1	Based on organic agriculture and learning-type community (e.g., “Mohanoongse” in Goesan)
Jeonbuk	2	Post-industrial revitalization through local branding (e.g., Gunsan)
Jeonnam	6	Maritime and cultural resource utilization (e.g., Mokpo’s “It’s Okay Village”)
Gyeongbuk	9	Experimental villages in depopulated regions (e.g., Gyeongju, Andong)
Gyeongnam	5	Combining natural ecology and generational integration (e.g., Hadong)
Total	39	

Table 8. Themes and content of youth villages

Theme	Description	% (n=39)
Community building	Youth exchange, social dining, village parties	35%
Local-based startups	Business model planning, local markets, pilot practices	22%
Culture/arts	Cultural projects, performances, village film-making	18%
Local exploration	One-month stays, local tours, immersion camps	15%
Capacity building	Content creation training, social media education	10%

Table 9. Types of content in youth villages

Type	Description	Example content
Experiential	Local life and job experience	One-month stay, job exploration
Workshop/education	Skills, entrepreneurship, content production	Startup camps, video workshops
Community	Community building	Communal dining, youth night
Creative/production	Media, exhibitions, storytelling	Village record videos, storybooks
Exploration/networking	Village tours, interregional exchange	Local roads, travel programs

2) 지역형 청년마을, 지역 공동체의 운영 콘텐츠 및 유형 분석

지자체별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지역형 청년마을 및 청년 공동체는 운영 주체와 공간 및 콘텐츠 운영 목적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적 활동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지역별 대표 마을과 주요 특징은 Table 10과 같다.

지역형 청년 마을 및 공동체의 콘텐츠 주제 및 내용은 지역 특성과 청년 유입 목적에 맞추어 Table 11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지역형 청년마을 및 공동체의 대표 콘텐츠 주제는 ‘관계 형성’ 및 ‘로컬 창업’ 관련 활동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과의 융화와 지속적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 및 로컬자원 활용 창업 관련 콘텐츠의 비율이 높은 부분은 행안부 지정 청년마을에서 나타난 콘텐츠 비율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이는 지역별 청년마을 또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심리적 소속감,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10. Operational area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type youth villages and communities

Region type	Count	Main characteristics
Jeonnam	19	Culture/tourism-focused (e.g., “Youth Sketch Village” in Gwangyang, “Memory & Melody” in Boseong)
Jeonbuk	25	Social cooperative and regional learning types (e.g., “Youth Sansagong” in Jangsu)
Gyeongnam	7	Startup and shared-space focused (e.g., “TRIBUS” in Goseong, “CRAB” in Jinhae)
Gyeongbuk	12	Experimental project-based (e.g., “Dining Project” in Yeongju, “Moonlight Explorers” in Mungyeong)
Gyeonggi	16	Urban-connected cultural creation type (e.g., “SLON,” “SoSo,” “Azotea Amigos”)
Total	79	-

Table 11. Themes of content operated by local youth villages and communities

Theme	Main content examples	% (n=79)
Community building	Networking between local and outside youth, local tours	30%
Local-based startups	Startup practice using local resources, business planning	20%
Culture & arts	Village film production, traditional content planning	18%
Living/settlement support	Housing, food culture experiences, return-to-farming workshops	12%
Education/capacity building	Lectures by local creators, content planning workshops	10%
Local resource exploration	Heritage visits, local branding and research	10%

2. 제공자(운영자) 대상 심층 인터뷰

1) 청년창업 및 정착 콘텐츠에 대한 제공자 의견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심층 인터뷰 문항을 활용하여 중앙 및 지역형 청년마을, 청년공동체, 청년센터 운영자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8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청년마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도출된 청년창업 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상의 문제점으로는 단기적 성격의 사업 구조와 행정 주도의 획일화된 운영 방식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청년마을은 1~3년에 불과한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후속 지원이 부재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일관된 행정 지원이 어렵고, 민간 청년주체와의 협업이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

었다. 우선지원이 필요한 요소로는 초기 자금, 물리적 공간, 실무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역 내 공동체와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거 및 창업 공간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희공간은 존재하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실험적 프로그램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적 운영이나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도의 기획과 실행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였으나, 향후 안정적 운영과 수익 창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2와 같다.

Table 12. Summary of in-depth interview responses

Region	Policy & project Issues	Priority support items	Content to supplement
Gangwon	Lack of follow-up programs	Space	Space operation & experiential content
Jangsu	Staff rotation leads to reduced expertise	Network	Content diversification
Jeongeup	Inflexible administrative support	Space, funding, education	Local brand collaboration
Goheung	Need acceptance of experimental approaches	Space, funding, network	Sustained youth participation
Anseong	Support for self-reliant income structure	Funding, network	Advanced community content
Gwangyang	Need experimental local platforms	Funding, network	Practical skill-based content
Pyeongtaek	Simplify budget process	Funding, space, education	Convergent content
Yongin	Disconnected from broader support system	Funding, space, community	Inter-community networking content

2) 제공자 대상 심층인터뷰 분석

운영 형태별 인식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지역형 청년마을, 청년공동체, 청년센터의 항목별 의견 내용을 비교한 결과, 지역형 청년마을의 경우 단기적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으며, 청년 공동체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운영 구조로 인해 행정과의 연결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공동체 내부의 수익 구조 형성 등의 운영 자립성과 관련된 현실적 과제를 지적하였다. 청년센터의 경우에는 창업이나 콘텐츠보다는 정권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단절성과 부처 간 연계 미비에 대한 고민이 중심을 이루었다.

청년마을 운영자와 청년 공동체 실무자 등 제도 및 사업 제공자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현재 청년마을과 공동체 현장에서 운영되는 다수의 콘텐츠는 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프로젝트, 마을 내 커뮤니티 기반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 모델 확장성, 참여자 중심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 지역 응답자의 “청년 정착의 가장 큰 장벽은 한정적인 일자리이며, 지역 정책과 결합한 장기적 대안마

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장수 지역 응답자의 “장기 정착을 위해 일회성 콘텐츠(제작 클래스, 지역 산책 등)보다 청년들의 콘텐츠 기획능력 향상으로 통한 지속가능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청년정착을 위한 단기성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지원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장기정착이 가능한 콘텐츠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의 장기적인 정착과 창업을 통한 자립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관심과 역량 차이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창업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심에 대한 문제도 지적 되었다. 안성 지역 담당자는 “창업 청년들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 경제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사업이 시급하다”라는 의견과 평택 지역 담당자의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기초적 역량(기획, 회계,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원 지역 담당자의 “활동가 지원사업 내용 중, 활동가가 지원하는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비 구성이 필요하다”라

는 의견은 지속가능한 청년들의 지역 이주 및 창업을 위해 경제적 자립능력은 필수적이며, 스스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지역간 연계에 기반한 정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화성 지역 담당자는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콘텐츠는 지역 청년 뿐 아니라 타지역 청년들의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고, 현재 100명 정도가 꾸준히 교류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지역에 한정된 활동 보다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은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업에서 한정하지 말고, 스스로 주변과의 관계를 맺으며 지역에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수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는, 다수의 콘텐츠가 행정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프로그램이 자신의 실제 필요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인식하거나, 참여 초기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

다. 이는 정읍, 평택, 강원 등 다양한 지역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특히 “참여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택 지역 응답자의 진술은 정책 설계와 콘텐츠 기획에서 수요자 중심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3. 수요자(청년)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의 운영자 심층인터뷰 결과는 공통적으로 첫째, 단기·행정주도 구조의 한계, 둘째, 공간·자금·교육·커뮤니티의 우선 지원 요소, 셋째, 실험형 프로그램의 일회성과 수익모델 전환의 어려움, 넷째, 정착 이후 연계 부족을 지적하였다. 운영자 경험 기반 심층인터뷰 결과를 재구성하여 수요자(청년)들 시선에서 느끼는 청년 창업 및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요자 대상 설문 조사는 25년 9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창업 경험, 청년 역량강화 콘텐츠, 청년창업 지원

Table 13. Education & content satisfaction survey results

Category		Top 5 factors					N
		1	2	3	4	5	
Satisfaction	a	Startup preparation	Networking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Shop access	40
	b	4.28/5	4.20/5	4.04/5	3.92/5	3.80/5	
Dissatisfaction	a	Fine info	Education application	Duplicate training	Diversity	Area	40
	b	3.05/5	3.03/5	3.00/5	3.00/5	2.87/5	
Required skills	a	Market analysis	Sustainability	Local integration	Product development		40
	b	4.53/5	4.53/5	4.28/5	4.03/5		
Essential for continuity	a	Expense	Workforce	Sales channels	Emotional	New tech	40
	b	4.41/5	4.21/5	4.11/5	3.87/5	3.45/5	
Desired education	a	Start up fundamentals	Using support programs	Make community	Utilization local resources		40
	b	4.28/5	4.26/5	3.90/5	3.87/5		

* a: Survey item, b: Average weight

인프라, 청년 창업 및 정착 활성화 지원방향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응답자 수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창업교육 평가 및 만족도 부분 설문결과

청년 창업 교육의 효과는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동기 수준과도 연관 된다(Lee et al. 2023). 따라서, 정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창업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여부와 만족도 분석을 위해 문항별 5점 척도를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창업에 도움이 된 교육으로는 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과정(4.28)과 네트워크 형성(4.2) 부분이 가장 높았으며 점포 위치, 시설 등 물리적 자원 운용에 대한 부분(3.80)이 가장 낮았다. 교육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3.05) 교육 신청 과정이 어렵다(3.03)가 가장 많았다. 창업에 필요한 역량은 시장 정보 파악(4.53)이 가장 중요하며 지출관리와 판로개척(4.41)의 어려움이 창업 지속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창업 교육으로는 창업 전반에 관한 교육(4.28)과 지원사업 활용 방법(4.26)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청년 역량강화 콘텐츠 부분 설문결과

청년 창업 및 정착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를 도출하기 위해 문항별 요소를 제시하고 중요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청년 역량강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별 가중치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관성 기준(2.0)을 초과하는 응답자를 제외한 35명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활용한 응답자의 CR 평균은 1.98이었다. 응답자 중 남성은 21명, 여성은 14명이었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3, 농업 및 임업

8, 제조업 8, 기타 6이었다. 분석 결과, 필요 콘텐츠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교육(0.249)와 지역 자원 활용(0.221), 디지털 역량 강화(0.194), 외부 협업(0.171), 문화예술 융합(0.166) 순으로 가중치가 분석되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 부분에서는 35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1명, 여성은 14명이었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3, 농업 및 임업 8, 제조업 8, 기타 6 이었다. CR 평균은 1.68 이었으며, 자금조달 능력(0.279), 위기대응 능력(0.198), 지역 융화(0.188), 네트워크 형성(0.172), 글로벌 감각(0.166) 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어 창업 및 정착 활동 유지를 위한 자금확보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도출 되었다.

청년의 지속가능한 창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요소 부분에서는 38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3명, 여성은 15명 이었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5, 농업 및 임업 10, 제조업, 7, 기타 6이었다. CR 평균은 1.64였으며, 제품 마케팅(0.228), 제품개발 기획(0.218), 판로(0.209), 디지털 활용(0.184), 실무(0.161) 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어 제품의 개발, 홍보, 판매 과정에 대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년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 부분에서는 36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1명, 여성은 15명 이었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6, 농업 및 임업 8, 제조업, 7, 기타 5였다. CR 평균은 1.10 이었으며, 외부 네트워크 구축(0.261), 공동체 마케팅(0.194), 리더십(0.186), 운영모델 개발(0.182), 갈등관리

(0.177) 순으로 가중치가 분석되어 외부 공동체와 연계한 상생방안 마련 능력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도출 되었다.

청년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요소 부분에서는 38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1명, 여성은 17명 이었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5, 농업 및 임업 10, 제조업, 7, 기타 5이었다. CR 평균은 1.07이었으며, 지역사회 소통(0.252), 커뮤니티 조직 연계(0.220), 사회적 가치 및 경제 연계(0.192), 디지털 협업(0.172), 프로젝트 기획(0.164) 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어 공동체별 능력 보다는 공동체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지속가능한 청년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응답 하였다.

창업 및 공동체 운영 관련 분야별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하여 창업 고려사항 및 아이템 개발 등 창업분야 교육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30명), 지역 특징 및 공동체 연계 등 지역분야 교육 경험자가 가

장 적은 것으로 분석(23명) 되었다. 청년 공동체 및 지속가능한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역량에 대하여 수요자(청년)들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지원되는 교육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 청년 창업지원 인프라 부분 설문결과

창업교육 제공기관별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관성 기준(2.0)을 초과하는 응답자를 제외한 38명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2명, 여성은 16명 이었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4, 농업 및 임업 10, 제조업, 8, 기타 6이었다. 분석에 활용한 응답자의 CR 평균은 0.73이었다. 분석 결과, 지자체 제공(0.432), 중앙기관 제공(0.318), 민간기업 제공(0.250) 순으로 가중치가 분석되어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Analysis of youth capacity-building content

Category	Top 5 factors					N	CR (Avg)	
	1	2	3	4	5			
Content enhancement	a	Sustainable value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Digital capability	External collaboration	Cultural and artistic convergence	35	1.98
	b	0.249	0.221	0.194	0.171	0.166		
Growth capability	a	Financing	Crisis response	Regional intergration	Network	Global mindset	35	1.68
	b	0.279	0.195	0.188	0.172	0.166		
Support mechanisms	a	Marketing	Planning	Market channels	Digital utilization	Practical operations	38	1.64
	b	0.228	0.218	0.209	0.184	0.161		
Community management	a	Network	Marketing	Leadership	Model development	Conflict management	36	1.17
	b	0.261	0.194	0.186	0.182	0.177		
Community sustainability	a	Local communication	Community	Social value	Digital collaboration	Project	38	1.10
	b	0.252	0.220	0.192	0.172	0.164		

*a: Survey item, b: Average weight

창업교육 제공기관별 선호도 부분에서는 39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 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3명, 여성은 16명 이였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5, 농업 및 임업 10, 제조업, 8, 기타 6이었다. CR 평균은 0.83 이였으며, 지자체 선호(0.432), 중앙기관 선호(0.318), 민간기업 선호(0.250) 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어 교육 제공기관 또한 지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부분에서는 38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1명, 여성은 17명 이였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6, 농업 및 임업 9, 제조업, 7, 기타 6이었다. CR 평균은 1.48였으며, 점포, 사무실 등 창업공간(0.236), 주거공간(0.236), 문화여가 시설(0.215), 돌봄지원 시설(0.158), 교통인프라(0.155) 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어 경제적 자립과 정주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지원 정책의 합리적 평가 기준 부분에서는 34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19명, 여성은 15명이였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3, 농업 및 임업 8, 제조업 7, 기타 5이었다. CR 평균은 1.71이였으며, 지원 종료 후 효과의 지속성(0.234), 수혜자의 성장 효과(0.233),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0.210), 정량적 성과(0.164), 정성적 성과(0.159) 순으로 가중치가 분석되어 정성·정량적 평가와 같이 기존의 평가방법 이외에 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부분에서는 39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고, 응답자 중 남성은 22명, 여성은 17명 이였으며, 운영 경험이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 16, 농업 및 임업 9, 제조업, 8, 기타 6이었다. CR 평균은 1.56이였으며, 창업자 및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0.223), 로컬 브랜드 강화(0.222), 멘토링(0.201), 협력모델 구축(0.186),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0.169) 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어 청년 창업자 및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창업 유도 전략이 앞으로 관련 교육과 콘텐츠가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응답 하였다.

Table 15. Analysis of youth startup support infrastructure

Category		Top 5 factors					N	CR (Avg)
		1	2	3	4	5		
Institutional importance	a	Local	Central	Private			38	0.73
	b	0.432	0.318	0.250				
Institutional preference	a	Local	Central	Private			39	0.83
	b	0.452	0.276	0.273				
Essential infrastructure	a	Entrepreneurship	Housing	Culture and leisure	Care service	Transportation	38	1.48
	b	0.236	0.236	0.215	0.158	0.155		
Evaluation criteria	a	Sustainability	Growth effects	Spillover effect	Quantitative	Qualitative	34	1.71
	b	0.234	0.233	0.210	0.164	0.159		
Activation strategy	a	Network building	Local branding	Mentoring	Collaboration model	Best practices	39	1.56
	b	0.223	0.222	0.201	0.186	0.169		

* a: Survey item, b: Average weight

4) 청년창업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방향 부분

이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과 방향에 대해 서술형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4명의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남성은 13명, 여성은 11명 이었다. 응답자의 공통적 의견으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거비 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며 지역에 살아볼 기회를 제공”, “거주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 “일자차별 거주지원 정책의 통일” 등 주거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과정의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적 교육 필요”, “관심분야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판로개척을 위해 지역 기업과 멘토링 시스템 운영” 등 청년 창업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실습 기회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맞춤형 실습 교육과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와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들이 지역에 이주·창업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기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지목되었다. “지역 정착에서 토착민들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큼.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와 청년들에 대한 융화교육이 필수”라는 의견에서 단순히 청년 개인의 역량이나 열정만으로는 정착이 어렵고, 기존 세대가 청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청년에 대한 융화 교육

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관공서나 지자체 주도의 디지털 교육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기업, 1인 기업 등 디지털 공급기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업 선정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분야 청년기업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콘텐츠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공급자(운영자)와 수요자(청년) 양측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청년마을 및 청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청년 창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AHP 기반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의 실효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창업 콘텐츠는 정착 단계까지 고려한 장기적·연계형 콘텐츠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 창업 관련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성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창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의 운영, 성장, 협업, 정착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창업공간 마련 이후 제품개발, 유통 및 마케팅 훈련,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 형성 등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은 창업 과정에서 시장 정보 파악, 자금조

달, 제품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실무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론 중심, 문서 작성 위주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응 전략, 지역 자원 활용 방안 등의 교육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공급자는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 방식 또한 실습 기반, 멘토링, 현장 실험 등의 형태로 다양화하여야 한다.

셋째,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 통합과 인프라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 기반 창업 및 정착의 성패는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yu & Choi 2023).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주거, 창업이 통합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기에(Kim et al. 2015) 청년들의 창업 및 정착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업지원을 넘어 주거, 공간, 문화, 복지, 교통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주거 공간과 창업 공간의 부족, 지자체 간 정책 기준의 불일치, 정책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기반 하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유연한 행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공동체 운영에 있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 커뮤니티 간 협력 모델, 사회적 가치와 경제활동이 융합된 콘텐츠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조사 대상의 지역 및 표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로, 청년 창업과 정착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나 정책 효과의 장기적 관찰은 어렵다. 셋째, 심층 인터뷰 등 정성적 자료 해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 창업 및 정착 정책에 있어 실제 당사자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콘텐츠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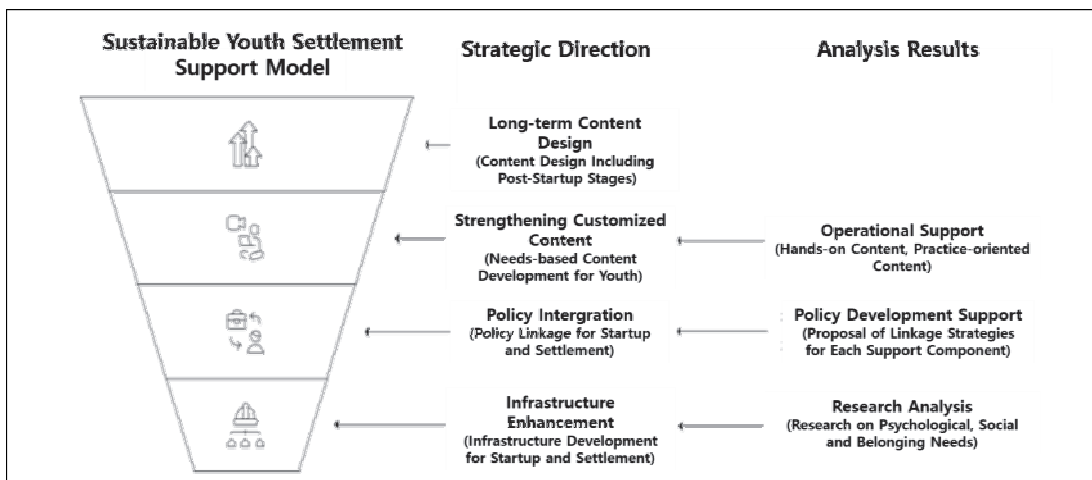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diagram of research results utilization.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술적으로는 창업 이후 정착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지역 소속감 등 질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자금, 공간, 교육, 커뮤니티 등 핵심 지원 요소 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일회성 콘텐츠의 한계를 넘어 청년 주도형 실천 콘텐츠와 지역자원 연계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못했던 청년 창업 이후의 정착 문제, 수요자 기반 콘텐츠 개선, 실질적 체감도 반영 등의 측면을 보완하고 확장함으로써, 청년 창업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콘텐츠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청년 창업과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창업 및 정착 정책은 수요자 기반의 콘텐츠 설계, 지속 가능한 정착 인프라 마련, 정책 간 연계성 확보를 중심으로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청년의 장기적 활동 지속과 지역사회 정착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형 콘텐츠 시스템 개발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n JW, Park DB(2021) Policy priorities for promoting youth activities wit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J Agricult Extens Community Develop* 28(1), 53-68. doi:10.12653/jecd.2021.28.1.0053
- ASEAN Secretariat(2024) The Future of Work for Youth in ASEAN: Policy Approaches and Regional Frameworks. *ASCC-RD Policy Brief* No. 15
- Ashurbaev, O(2024) Youth Entrepreneurship Policy: Contemporary Challenges and Ways Forward
- Beak IJ, Choi KH(2021)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supporting policies for SMEs using the AHP method: focused on small- and medium-sized clothing manufacturing companies. *Korean Production Operations Manag Soc* 32(1), 1-21. doi:10.32956/kopoms.2021.32.1.1
- Byun CG, Sung CS(2013)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Spring Academic Conference* 1-15
- Decent Jobs for Youth, & ILO(2022) Community Activation and Development Toolkit for Youth Employment
- European Union(2020) Youth Entrepreneurship Policy Evaluation Toolkit (YE Eval)
- Huh JB, Lee GS(2021) The effect of judgment scales of AHP on technology valuation in offset program.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2(7), 61-67. doi:10.5762/kais.2021.22.7.61
- Jun MR(2024) Sense of community influencing intent to continue farming for young farmers -focusing on the young farmers 4-H community-. *J Agricult Extens Community Develop* 31(3), 103-113. doi:10.12653/jecd.2024.31.3.0103
- Kang JW, Kwon JH(2022) Toward prepared and lean youth entrepreneurship. Available from <http://www.kosi.re.kr> [cited 2022 September 2]
- Kim JH, Kang JI, Kim KD, Jung YH, Choi EA(2015) A study on strategies for creation youth employment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s. *Sustainable Agriculture Reserach Institute, Report*
- Kim YS(2016) Performance analysis and improvement program on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f rural youth -with support project for farming resettlement by Chungchengnam-do-,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52-53
- Kwon HI, Kim AR(2014) A weighte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art cooperatives using AHP. *Korean Soc Cooperative Stud* 32(2), 31-55, doi:10.35412/kjcs.2014.32.2.002

- Lee DH(2021) Analysis of important decision factor for online platform use: an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pproach. *J Korea Indust Inform Systems Res* 26(6), 81-96. doi:10.9723/jksis.2021.26.6.081
- Lee GM, Sung YR, Bea SW(2023) A study on effective support for startup revitalizatio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Report*. pp54-77
- Lee JS, Lee SM(2022) A study on the improvements for startup supporting programs in Kore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startup supporting programs, *J Venture Innovation* 5(2), 15-34. doi:10.22788/5.2.2
- Lee SH, Park MH, Shin HY, Pyo HH, Jang YS, Park SL(2018) Comprehensive evaluation of youth startup support programs.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Report*
- Lee YJ, Kim CW(2023) Realities and limitations of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 an analysi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J Soc Security Law* 49, 463-490, doi:10.22949/kassl.2023.49.013
- National Youth Support Center. Available from <https://nysc.or.kr> [cited 2025 August 7]
- Noh KS, Kang HJ(2012)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Soc Digital Policy Manag* 10(9), 79-87
- OECD-EU(2023) Youth Entrepreneurship Policy Academy (YEPA) Launch Agenda
- Park JS, Lee HC, Moon MN, Kim HH, Kand WS(2024) Study on minimizing errors in research using the AHP method: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Consistency Ratio(CR).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5(12), 45-54. doi:10.5762/kais.2024.25.12.45
- Park CS, Park D, Kim SJ(2013) a study on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for youth start-ups, *KRIVET, Report*
- Ryu HJ, Choi SG(2023) Public policy suggestions for vitalization of startup business in Jeonbuk region. *J Korean Public Policy* 25(3), 3-41. doi:10.37103/kapp.25.3.1
- Saaty RW(1987)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what it is and how it is used. *Mathematical Modelling* 9(3-5), 161-176. doi:10.1016/0270-0255(87)90473-8
- Saaty, Thomas. L, Vargas. Luis, G(2012) The Seven Pillar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Models, Methods, Concepts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national Series in Operations Research & Management Science, in: Models, Methods, Concepts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dition 2, chapter 0, pages 23-40, Springer*
- Tea HW, Song MY, Shin YR(2021) Policy measures for fostering and retaining young women farmers, *Chungcheongnam-do Woma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 World Bank, IFC(2013) Evaluation of Youth Employment Programs: A Learning Review
- Yang HB, Jo YS, Jo DH, Han CY, Park JB(2013)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port*